

# 가구 28% “번 것보다 나가는 것 더 많다”

소득은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는 급등, 지출부담이 늘어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전국가구(농어가 및 1인가구 제외)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28.1%로 전년 같은 기간(27.8%)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는 가계수지 통계 작성이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28%에서 2004년 27.3, 2005년 26.8%로 떨어졌다가 2006년 27.8%, 2007년 27.8%에 이어 올해는 28.1%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적자가구 비율은 소득과 지출의 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다른 재산 상황은 반영되지 않는다. 적자가구

## 2분기 적자가구 비율 2003년 이후 최고

### 소득 정체에 물가 급등 서민가계 위협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기간에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가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이라도 해당 기간에 버는 것 이상을 지출하거나 목돈을 쓰게 되면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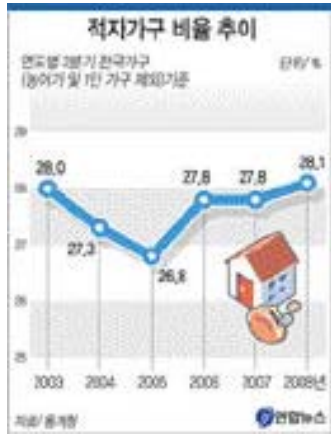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중 올해 2분기에 적자가 난 가구의 비율은 23.7%로 전년 동기(22.5%)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적자가구 비율도 지난해 2분기 11.4%에서 올

해 2분기 12.3%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하위 30%인 소득 1~3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51.2%에서 49.6%로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근로자가구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 역시 지난해 2분기 22%에서 올해 2분기 23.2%로 1.2%포인트 높아졌다. 도시근로자가구 중 소득 4~7분위와 8~10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각각 21.7%와 10.6%로 1년 전에 비해 2.9%포인트와 1%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1~3



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37.7%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전국가구·도시근로자가구 모두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기침체로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지출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치솟는 환율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6.40원 폭등한 1,078.90원으로 거래를 마친 25일 오후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6.40원 폭등한 1,078.90원으로 거래를 마친 25일 오후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환율 1,100원 눈앞 ... 정부 손 놓았나

## 한달새 70원 이상 폭등 불구 고강도 개입 안해

원·달러 환율이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1,080원에 육박했다.

한 달간 70원 이상 폭등한 환율 흐름은 지난 달 초 대규모 개입을 단행한 외환당국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환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00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1,050원대로 올라선 환율이 1,060원과 1,070원 선을 차례로 돌파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역할은 잘 듣지않고 있다.

당국은 이날도 10억달러 안팎의 달러를 풀었으나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외환당국은 장중 환율을 30원 가량 끌어내렸던 지난 달 9일과 같은 고강도 개입은 하지않았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정부가 최근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달러화 강세와 무역수지 적자 등 대내외 여건이 환율 상승에 우호적인 상황여서 무리한 개입에 나섰다가 투기세력의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당국의 태도 변화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을 정부가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9월 외화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국이 실탄을 비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이미 상승 탄력

을 받은 만큼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수요 우위에 의해 균형 환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이상과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변동환율 제도에서 일정 정도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환율이 수급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1,100원도 넘을 수 있다”며 “정부로서도 어느 정도는 시장 환율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시장 자체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휘발유·경유 소비 줄고 LPG 급증

### LPG 차량 증가로 24% 늘어

고유가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줄고 있지만 액화석유가스(LPG) 소비량은 크게 늘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7월 석유수급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493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의 520만 배럴에 비해 5.1% 줄었다.

휘발유 소비량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은 4월 6.5%에서 5월 0%로 낮아진 뒤 6월 -4.6%, 7월 -5.1% 등으로 감소폭을 키웠다.

경유 소비량도 7월 924만 배럴로

지난해 7월의 1천66만 배럴에 비해 13.3% 급감했다. 다만 6월에 25.8%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소비가 회복되는 추세다.

이와 달리 주로 LPG 차량용 연료로 쓰이는 부탄의 7월 소비량은 589만 배럴로 작년 동월의 473만 배럴에 비해 24.5% 급증했다. 부탄 소비량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4월 4.3%, 5월 19.6%, 6월 15.6%, 7월 24.5%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적게 드는 LPG 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석유공사는 분석했다.

## KT 30일·LG파워콤 25일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

###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

방통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각각 30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었다.

방통위는 아울러 KT에 대해 과징금 4억1천80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천3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고객에 대한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사가 가능한 ID를 제공하고, 고객 동의없이 위탁법인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가환급금 소급 적용 한나라, 7월1일 기준

한나라당은 25일 고유가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유가환급금 문제와 관련, 환급 기준가 이상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1일부터 소급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환급 기준가를 '경유값 2당 1천800원'으로 정하고 7월1일부터 그 이상 금액에 대해 50%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규정빌딩생사동)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무원인)  
(062) 227-9970

### 조이 여행사

여행, 항공, 숙박, 렌탈, 여행 상품 전문

문의: 02-214-3222

---

**일본 - 도쿄여행**

여행, 항공, 숙박, 렌탈, 여행 상품 전문

**일본여행 2박 3일 - 299,000**

**일본여행 3박 4일 - 419,000 / 469,000**

**일본여행 4박 5일 - 969,000**

**일본여행 5박 6일 - 1,399,000**

**일본여행 7박 8일 - 299,000**

### 카멜리아 3박 4일 (45H)

**549,000**

**699,000**

방통통신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

### 일본 이디온

일본여행, 항공, 숙박, 렌탈, 여행 상품 전문

**후쿠오카 하우스텐보스 6일 999,000**

**후쿠오카 하우스텐보스 4일 1,299,000**

### 일본 여행 상품

일본여행, 항공, 숙박, 렌탈, 여행 상품 전문

**일본여행 2박 3일 445,000**

**일본여행 3박 4일 535,000**

**일본여행 4박 5일 625,000**

**일본여행 5박 6일 289,000**

문의: 02-233-5900